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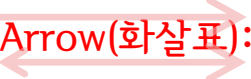





Keep It Simple and Short

2018학년도 수능완성(상)

25제

0. 3년 간 꾸준히 나쁘지 않은(ㅎㅎ) 실적을 내고 있는 저자가, 올해 2월부터 현재의 수능 직전까지 정말 올해 EBS와 최근 기출을 하루종일 달고 살며 선별 및 변형포인트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절평인이라 EBS를 비롯한 영어 공부를 정말 안 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6, 9월 평가원 컷이 이를 방증하죠. 절평으로 소수점, 한자리 점수가 깎인다 해도 본인이 지원한 과의 합불 여부에는 결정적입니다. 삼수를 하고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며 너무나 많은 케이스를 보아왔습니다. 제발 영어, EBS 영어 경시하지 마시고 막바지에 열공하셔서 올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2018학년도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간접, 직접 연계 지문은 모두 제외한 선별입니다. No worries!
2. 시중 출판된 혹은 유명 인강 강사의 EBS 자료를 평가원이 다 들고 간다고 하는데, 이 자료의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10일 경까지 순차적으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평가원이 참고할 수도, 참고한다고 해도 이미 문제를 바꿀 타이밍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3. 2018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직접 연계 출제 유형은 어법1, 어휘1, 지칭1, 빈칸2, 흐름1, 순서1, 삽입1 로 총 8개입니다(빈칸 하나가 연결어나 요약으로 바뀔 수도). 이 유형 중 실질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문이 나왔을 경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유형, 그리고 일반적으로 킬러의 범주에 들어가는 유형은 어휘, 빈칸, 순서, 삽입입니다. 따라서 이 유형들을 위한 선별에 집중하였으며, 흐름도 중요 유형이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무난하고, 흐름만으로 변형할 수 있는 지문이 많아 비효율적이라 판단, 제외하였습니다(물론 선별한 지문 중, 저자가 흐름으로 변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지문이기 때문에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Lucky!). 어법 또한 중요 킬러 유형이지만 지문의 내용과 논리 흐름을 아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그렇지만 역시 흐름과 마찬가지로, 이 선별에서 나올 수 있겠죠. Lucky again!)
4. 작년, 재작년 수능에서 모두 '2문제 장문'이 순서로 변형되었습니다. 6, 9월에 비해 2문제 장문 출제 빈도가 높은 이유는 역시 강사 및 학생 분들이 경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2문제 장문은 꼭 포함을 하였고, 출제된 장문은 지금까지 항상 선별에 있었습니다.
5. 평가원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빈칸의 경우, 비연계에 비해 연계 빈칸이 살짝 구성 면에서, 답의 근거 면에서 딱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시중에 변형된 빈칸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하고, 역시 참고 하여 빈칸 변형 하였습니다. 혹, 이 자리가? 라는 느낌이 들어도 감안해주세요.
6. 역설적으로, 연계를 연계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비연계'를 풀 시간이 생깁니다. 열심히 막바지 공부하세요 내신이라 생각하고!
7. 타 사설 문제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한.번.도 본 적이 없음(관심도 없음..) 미리 알려드립니다. 좋은 지문의 좋은 변형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테니까요.
8. 정말 마지막 순간을 노리고 제작한 자료이기에, 당연히 검토는 하지만 소소한 오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

-  : 지문의 내용상 3단(가끔 2단) 구성을 구분하는 표시, 요약의 구성과 동일
- Underline(밑줄)**: 보통 답의 '근거'. 혹은 답 그 자체
-  **Arrow(화살표)**: 답과 답의 근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역할 (쌍방향은 대조로 보여줌)
- Bold(진하게)**: 중요 어휘 정리
-  **Summary** : 글의 삼단 구성을 바탕으로 요약. '핵심을, 간결하게, 가끔은 재미진 말투로' 표현
-  **KEY Point** : 보통 글의 '변형' 포인트와 근거 설명. 추가적인 소재 설명이나 기출과의 연관성도 설명
Means and Ends: 수단과 목적 /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  **Vocabulary** : 지문에서 어려워면서 중요한 어휘, 표현. 한번에 알아 두면 좋은 건 길어도 한번에 표시
- 기타 자료에 관한 모든 질문은 메일 sheanlee23@gmail.com으로 보내시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해석'을 꼭 해본다. 단순한 해석 뿐만 아니라 지문의 논리 흐름을 잡으려 노력한다. 이해가 안 되면 두 세번 정도 정독해도 좋다.
2. '어휘'를 참고하여 모르는 어휘를 보충하고 다시 해석을 해본다.
3. 이제 '요약'을 참고하여 몰랐던 내용을 이해하고, 이러한 삼단 구조로 글을 '단순화(simplification)'하여 이해할 수 있구나 깨달으며, 맘 속에 저장한다. 혹 요약을 봐도 해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경우 거의 95% 이상 중요하지 않은 부연 설명, 예시 부분이므로 넘어가도 좋다(원래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다!)
4. '변형' 포인트 부분을 보며, 이러한 이유로 근거로 이렇게 변형이 되었구나를 이해한다. 제발 그냥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하자. 그래야 아, '비연계'도 이러한 논리로 나오는구나, 이해하면서 비연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해를 했다면, 맘 속에 저장한다.
5.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빠르게 꼭 해석을 하여 머릿속에 흐름을 그리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간다.
6. 1~5의 과정은 독자의 실력 및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다. 혹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한 번 해석 →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어휘 및 요약으로 이해 → 변형 포인트 이해' 정도로 하고 얼른 얼른 넘어가는 걸 추천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금이다!
7. 한 번 쪽 돌리고 수능 직전에 한 두 번 더 돌린다(이미 한 번 돌리면 2, 3번째는 획획 볼 수 있다. 시간 부담 ㄴㄴ). 한 번 돌린 걸로는 기억이 잘 안 나므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caution!
8.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직접 연계의 도움을 크게 받아 가볍게 영어를 1등급 찍어준다.
9. 기쁜 마음에 후기를 올린다.
10. 가고픈 대학을 간다. 끝.

When individuals have had only limited or no contact at all with a particular culture, they commonly hold **stereotypical**, or broad and usually **distorted** behavioral **generalizations** about that culture and its members. In the (A)absence of direct experience, stereotypes provide a set of guidelines that are used to **indicate** what can be expected when **encountering** members of that culture. It can be argued that direct contacts between tourists and residents dispel such stereotypes and allow the members of each group to **perceive** one another **as** individuals and, **potentially**, as friends. Tourism is thus seen as a (B)potent force for cross-cultural understanding because huge numbers of people **come into contact** with members of other cultures both at home and abroad. In Australia, direct contacts with Japanese and other Asian tourists have undoubtedly contributed to the (C)erosion of stereotypes held by some Australians, while the same effect has also occurred **in reverse** through the exposure of **outbound** Australians to Asia and other overseas destinations. * dispel: 없애다 ** potent: 강한

Summary

1. 특정 문화와 접촉이 없음 → 고정관념 + 일반화 갖게 됨 → 해당 문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
2. Solution: 해외 여행을 통한 직접 접촉 → 문화 간 이해에 큰 도움!
3. 아시아인들이 호주로 오거나, 호주인들이 아시아 국가로 여행 감 → 고정관념 bye bye~

KEY Point

1. 변형: 어휘. (A) absence / presence(존재), (B) potent / ineffective(비효율적인), (C) erosion / generation(창출)

Vocabulary

1. stereotypical: 고정관념의
2. distorted: 왜곡된
3. generalization: 일반화
4. indicate: 나타내다
5. encounter: 마주치다
6. perceive A as B: A를 B로 인지하다
7. potentially: 잠재적으로
8. potent: 강력한
9. come into contact: 접촉하게 되다
10. erosion: 부식
11. in reverse: 역으로
12. outbound: 해외로 향하는

One way to **overcome** our initial **resistance** or fear of writing is to accept the fact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perfect writing**, at least not in this world. Even if it should exist, there would be critics to **find fault with it**. (Yet this does not mean we should **assume** a devil-may-care attitude or ignore the needs of the reader.) **Rather**, we need, for the moment, to **disregard** all concerns of **criticism** and desires to impress and just start writing. The same way a 10-year-old first learning to swim waits to overcome the **hesitation** before jumping into the deep end of the pool, we as writers often hesitate to “dive” into the pool of ideas we want to express, which we should avoid doing. Just as you can’t learn to skydive without leaving the plane, you can’t learn to write without putting pen to paper. Therefore, in a way, we are always jumping out of a real plane, although a mental one, when **scribbling** our first **draft**.

* devil-may-care: 될 대로 되라는 식의 ** scribble: 휘갈겨 쓰다

Summary

1. 초기 글쓰기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세상에 완벽한 글쓰기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2. 그렇다고 맘 가는대로 맘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까일 거 같은데’, ‘잘 써야 하는데’라는 걱정을 버리라는 것
3. 비행기에서 뛰지 않고는 스카이 다이빙을 할 수 없듯이, 우선 초안을 쓰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

KEY Point

1. 변형: **문장 삽입**. 삽입 문장의 this는 첫 문장의 to accept the fact that~을 받으며, 삽입 문장에서 not A를 말하고 난 뒤 바로 뒤 문장에서 but B의 역할을 rather가 하고 있다. 삽입 문장이 첫 문장 바로 다음에 올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Even if it에서 it이 perfect writing을 받는 것도 어색해지고, not A, rather B라는 전개도 할 수 없다!

Vocabulary

1. overcome: 극복하다
2. resistance: 저항
3. there is no such thing as~: ~와 같은 건 없다
4. find fault with: ~의 흠을 잡다
5. assume: 추정하다
6. disregard: ignore
7. criticism: 비판
8. hesitation: 머뭇거림
9. scribble: 휘갈겨 쓰다
10. draft: 초안

We often hear the expression “music is the **universal** language.” By this people mean that even if two people do not speak each other’s language, they can at least **appreciate** music together. But like so many popular sayings, this one is only **partially** true. Although all people do have the same physiological **mechanisms** for hearing, what a person actually hears is influenced by his or her culture. Westerners tend to miss much of the **richness** of Javanese and Sri Lankan music because they have not been **conditioned** to hear it. (Whenever we **encounter** a piece of non-Western music, we hear it (process it) **in terms of** our own culturally influenced set of musical categories involving **scale**, melody, pitch, harmony, and rhythm.) And because those categories are defined differently from culture to culture, the appreciation of music across cultures is not always **ensured**.

* physiological: 생리적(生理的)인, 생리학(상)의

Summary

1. 음악은 보편적 언어, 즉 서로 언어가 달라도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
2. 은 부분적으로만 맞음. 듣기 좋은 음악이 있긴 하겠지만, 당연히 문화에 영향을 받음
3. Ex.: 서양인들은 자바섬, 스리랑카 음악의 풍부함을 못 느낄 것, 음악을 들을 때 문화를 바탕으로 듣기 때문!

KEY Point

1. 변형: 문장 삽입. those categories로 연결되는 무난한 문장 삽입!

Vocabulary

1. universal: 보편적인
2. appreciate: 감상하다
3. partially: 부분적으로
4. mechanism: 기제
5. richness: 풍부함
6. conditioned: 조건화 된
7. encounter: 마주치다
8. in terms of: ~에 관해서
9. scale: 음계
10. ensure: 보장하다

A lower level of **on-the-job** work experience tends to result in a higher accident rate. Studies have shown a decrease in accidents over the period from the beginning of a new job to one and one-half years later. In one study, new workers averaged seventy-seven minor accidents on their first day of work, but on the next six workdays the accident **figure** dropped to **approximately** thirteen. Thus, there is a need for **comprehensive** safety training before the worker actually begins the job. (It is not enough to train new workers in the specific skills and abilities required for successful performance of their jobs.) They must also learn safe work rules and **proper** attitudes toward safety. In comparing groups of workers that had received safety training with those given no such training, the first group experienced far fewer accidents in their early days on the job.

Summary

1. 현장 업무 경험 수준이 낮으면 사고 多, but 안전 훈련 잘 받으면 사고율 감소
2. → 일 시작 전에, 단순히 일을 잘하기 위한 능력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규칙과 태도도 가지고 있어야!
3. 안전 훈련을 받은 노동자 vs. 안 받은 노동자: 당연히 전자가 사고율 낮음!

KEY Point

1. 변형: 문장 삽입. They 대명사 쓰임 및, not only A, but also B의 논리로 이어지는 무난 꺾 문장 삽입!

Vocabulary

1. on-the-job: 현장의
2. figure: 수치
3. approximately: 대략
4. comprehensive: 종합적인
5. proper: 적절한

I am often shocked at how fast musicians think relationships develop. In all my years of working with musicians, I've rarely seen an A&R person or manager come out on the first night they see a musician and say they want to sign them. Despite what you may have seen in the movies, this isn't how it usually goes. There is no contract waiting to be signed inside a briefcase. (But many musicians act like it's the end of the world if they don't get a **contract** the night they meet a potential team member.) They don't understand that this is the beginning of a relationship. Just as someone isn't a fan after they hear your song one time, it also takes time to develop and **explore** a working relationship with potential team members. Slowly showing someone how **enjoyable** it would be to work together is the way to build a team... not asking for a contract on night one.

* A&R: (음반 회사의) 신인 발굴 팀

Summary

1. 음악가들은 무슨 무대 한 번 하면 바로 스카우트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영화에서나 가능(비긴어게인?)
2. But, 음악가들은 어떤 관계가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모름. 스카우터를 만난 건 관계의 시작일 뿐!
3. 한순간의 계약이 아닌, 천천히 협업을 이어나가는 방식이 바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것!(비긴어게인이네..)

KEY Point

1. 변형: 문장 삽입. 또 비슷한 논리의 무난한 문장삽입.. 계속 무난한 문장삽입이라 조금 김이 새지만, 어쩔 수 없음. 문장삽입 2문제 중 앞 1문제는 무난한 연계, 뒤 1문제는 어려운 비연계가 추세이기 때문에 무난 문장 삽입들이 가능성으로 치면 높다!

Vocabulary

1. contract: 계약
2. explore: 탐구하다
3. enjoyable: 즐거운

Often, a **lively** discussion arises that raises important questions about **authorial (A)ownership** and helps everyone better understand the frequently confusing line between **plagiarism** and the **legitimate** use of what others say and how they say it. Students are quick to see that no one person owns a **conventional formula** like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Phrases like “a controversial issue” are so **commonly** used and recycled that they are **(B)generic—community property** that can be freely used without fear of **committing** plagiarism. It is plagiarism, however, if the words used to **fill in the blanks** of such formulas are borrowed from others without proper **acknowledgement**. **In sum**, then, while it is not plagiarism to recycle conventionally used formulas, it is a serious academic **offense** to take the **(C)substantive** content from others’ texts without citing the author and giving him or her proper credit.

Summary

1. 표절 vs. 합당한 인용의 헛갈리는 경계에 대해 작가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2. 아주 흔히 사용되는 문구들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문구 외의 표현을 허락 없이 쓰면 표절!
3. 요약: 전통적으로 쓰이던 문구 쓰는 건 표절 X. 다른 이의 실질적 내용을 인용 없이 퍼오면 표절!

KEY Point

1. 변형: 어휘. (A) **ownership** / readership(독자층), (B) **generic** / exclusive(독점적인), (C) **substantive** / customary(관습적인)
2. 소재는 흔하나, **평가원이 좋아할 만한 단어가 넘쳐나는 지문..!**

Vocabulary

1. lively: 활발한
2. authorial: 작가의
3. ownership: 소유권
4. plagiarism: 표절
5. legitimate: 적법한
6. conventional: 전통적인
7. formula: (판에 박힌) 문구
8. commonly: 흔히
9. generic: 일반 명칭의
10. community property: 공동 재산
11. commit: 저지르다
12.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우다
13. acknowledgement: 인정
14. in sum: 요약하면
15. offense: 위반
16. substantive: 실질적인